



GCCI Vol.71 2019

05

김포상의

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김포상공회의소



김포상공회의소

<http://kimpocci.korcham.net>

나를 키워가는 시기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

처음에는 모든 계획이 잘 짜여져 있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
지도상에도 없는 길로 들어서 헤매며 예상 못 했던 일들을 겪게 된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 여행의 절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화 '판도라의 상자' 中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막히는 부분이 있고,
계획과도 한참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 답답할 때도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땐 잠시 뒤를 돌아보세요.
지나온 길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보세요..
한때의 역경을 겪고 난 뒤 한층 더 발전된 자신이 보이지 않나요?
역경은 자양분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역경을 자양분으로 지금 서 있는 당신!
당신이 바로 든든한 김포 상의인입니다!





김포상공회의소 2019. 5 Vol. 71

Contents

- 04 GCCI Gallery**
김포상공회의소 뉴스
- 16 Members news**
회원사 소식
- 18 GCCI information**
알림 마당
- 20 GCCI Interview**
(주)드림셰프 | (주)신명전기
- 24 Gimpo news**
지역 소식
- 24 Life information**
건강칼럼 세무상식 경제칼럼
- 30 New member**
신규회원사 안내



발행일 2019년 5월 | 발행인 김남준
통권 제71호 | 발행처 김포상공회의소
주소 10092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2(걸포동)
전화 031)983-6655~6
홈페이지 <http://kimpocci.korcham.net>
디자인 · 제작 디자인나무 031)989-8112





11개 기업 베트남서 종합수출상담회 큰 성과 김포시, 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100만불 수출 상담, 915만불 계약체결 성과

김포시와 협력 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4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지역에서 종합수출상담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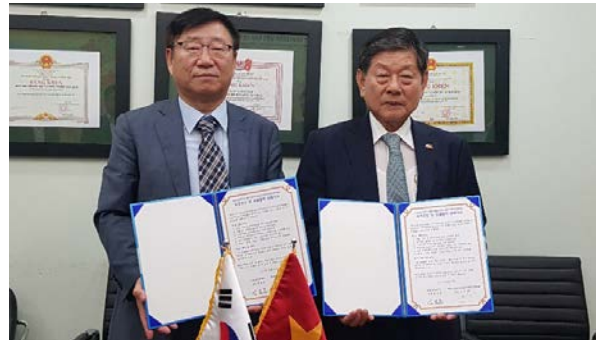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현지 네트워크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가 사전 시장성 조사를 바탕으로 (주)한일파테크, (주)삼선CSA, (주)서현엘리베이터, 성일산업(주), (주)오로라디앤씨, (주)퀵-아트, (주)한빛코리아, 한양기업(주), (주)용진기업, (주)제이원프라임, (주)에펠 등 수출잠재력이 높은 관내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그 결과 2,111만불(24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과 915만불(104억원)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하노이 상담회에서 주방용품 제조사인 (주)퀵-아트는 그동안 꾸준한 영업활동과 노력으로 가정용품 무역전문회사인 에프(F)사와 연간 300만 불(3년 계약) 상당의 구매조건 MOU를 체결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일정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은 호치민 한인상공인 연합회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또한 정하영 시장과 함께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관내 기업 (주)드림셰프를 방문하여 준공 기념 식수 행사를 가진 후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하노이로 이동하여 하노이 한인회와 카이스전자(주)를 방문해 베트남 관내 기업 활동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베트남은 2000년 이후 국내 총생산(GDP)이 매년 5% 이상 증가하는 아시아 최대 신흥시장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일인당 소득과 상류층 및 중산층의 구매력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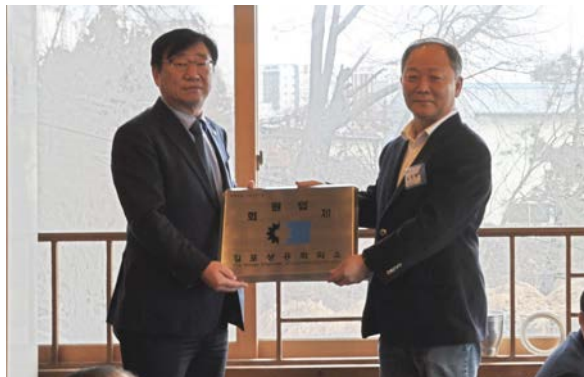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 등 상공인 24명 포상



지난 3월 21일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 표창 수여식이 김포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홍철호·김두관 국회의원, 김포상의 임원진 등이 참석하였으며, 건영산업 최명식 대표 외 23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다.

- ▲김포상의 회장 표창 : 최명식(건영산업 대표) | 조규준(디자인실 대표)
- ▲대한상의 회장 표창 : 정유섭(우성특수도장 대표) | 김현경(해주NC 대표)
- ▲국무총리 표창 : 심재국(주)크레치코 대표이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도승희(주)동산 대표이사) | 김양영(주)드림셰프 대표이사) | 김은섭(한국냉동산업 대표이사) | 이규식(경신금속(주) 대표이사) | 김예경(주)아산 부회장) | 김재훈(주)대한중전기 대표이사) | 서현석(크린에어테크(주) 대표이사)
- ▲경기도지사 표창 : 금경수(대정산업(주) 대표이사) | 노진복(주)삼선CSA 회장) | 고진호(주)코콤 부사장) | 이용재(주)호경에프씨 대표이사)
- ▲김포시장 표창 : 문사업(주)성지화학 대표이사) | 노재명(주)씨엔에프텍 대표이사)
- ▲김포시의회의장 표창 : 정진우(주)가나로 대표이사) | 김순중(주)동화인더스트리 대표이사)
- ▲홍철호 국회의원 표창 : 김정태(주)대우특수인물 대표이사) | 이태희(초록유통(주) 대표이사)
- ▲김두관 국회의원 표창 : 박창식(국가유공자상이군경자활사업장(주) 대표이사) | 이길선(금덕펄프산업(주) 대표이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 당부 제20회 신규 회원사 간담회



제20회 신규 회원사 간담회가 지난 3월 21일 감정동 옛골토성에서 김포상공회의소 김남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신규 회원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회원사를 소개하는 상견례 자리로 회원증 및 현판 전

달식이 있었다.

이어서 김포상의 현황 및 지원 사업 안내가 있었다. 김남준 회장은 상공회의소 사업 안내를 통해 상생·이업종교류협의회 활동과 관리부서장협의회 운영 관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원 가입 시 지원 사업, 수혜방안 등을 강조하며 회원사들이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중소기업 환경애로 해소 촉진 김포시-지역 기업인 간담회 개최



지난 3월 18일 중소기업 환경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인과의 간담회’가 김포시 주최로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김포상공회 의소 김남준 회장을 비롯한 각 협의회 임원 및 기업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환경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등의 시간을 가졌다. 기업 측에서는 사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교육을 통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주문했으며 시에서는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별 환경애로에 대한 현장 맞춤형 지원 및 개선 방안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환경개선의 적극적인 투자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는 경기도 내에서 공장등록 수가 3위에 달하며 그동안 양적인 팽창을 해 왔으나 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의 노력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지역 주민과 공존, 공생하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시에서도 이를 위해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 · 이업종교류협의회 조찬 간담회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는 지난 3월 13일(수) 장기동 엔젤스데이에서 2019년 상생 · 이업종교류협의회 조찬 간담회를 정하영 김포시장, 홍철호 국회의원 및 시 · 도의원과 김포상의 상생 · 이업종교류협의회 회원 및 관내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김남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금년에도 중소기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에 더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교류 활동 실적이 높아지고 있고, 금년에도 상생 · 이업종교류회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송인 이상벽 씨의 ‘ㄱ에 들어있는 인생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은 참석자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업종교류협의회는 김포시 관내 기업 간 협력과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9월 시작되어, 현재 6개 교류협의회 180여 회원사가 참여하여 매월 정례 모임을 갖고 있다. 교류협의회 업체들은 작년 한 해 10,000건, 710억 원의 회원 간 거래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특강, 업체 탐방, 워크숍, 우수제품 전시판매전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식 경신금속(주) 대표 수석부회장 선임 제28차 김포상공회의소 정기의원총회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는 지난 2월 27일 김포상의 '제28차 김포상공회의소 정기의원총회'가 엔젤스데이(장기동 소재)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김남준 회장을 비롯한 제10대 의원 50여명이 참석하여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심의가 있었으며 경신금속(주) 대표 이규식 부회장을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신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규식 신임 수석부회장은 "김남준 회장을 보좌해 훌륭하신 임원님들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며 올해도 힘든 경제 여건이지만 김포상의와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포상의는 내실경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회원서비스 강화, 회원사 경쟁력 제고 및 사업의 다각화 및 극대화 목표를 수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 희망나눔 성금 기탁식



지난 2월 22일 김남준 회장과 부회장, 상임의원 등 관내 복지시설 및 사회단체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희망나눔 성금 지정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은 김포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연말 임원진과 회원사들이 함께 모은 성금 일부를(3천4백만원) 관내 대한노인회와 장애인복

지관, 장애인단체연합회, 보훈단체연합회, 대한적십자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눔복지센터, 엔돌핀 장애인사랑나눔터 등에 지정기탁 됐다. 김남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가 어려운 이때 흔쾌히 성금모금에 참여하신 김포상의 임원진 및 회원사 대표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사회단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며 “우리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며 앞으로도 어려운 계층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포상의 관리부서장협의회, 헌혈증 기부



김포상공회의소 관리부서장협의회(회장 강인석)는 지난 3월 13일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의 집 일산 센터에서 헌혈증 기부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관리부서장협의회 회원 20명이 헌혈에 참여했으며, 헌혈증 기부도 함께 진행되었다.

김포 관내 업체 임원과 관리부서장 60여 명으로 구성된 관리부서장협의회는 임직원 교육과 정기회의 등을 통해 업체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9 신년인사회 "상생하는 힘과 역량으로 어려움 극복"



지난 1월 10일 아라마리나컨벤션에서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2019년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 신년인사회에는 정하영 시장, 김두관 국회의원, 서헌원 해병2사단장을 비롯 각급 기관단체장 및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남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IMF 때를 교훈 삼아 상생하는 힘과 역량을 결집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잘 극복하자"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시에서 많은 지원과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희망찬 김포시를 위해 상공회의소 또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메시지를 전하였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김두관 국회의원, 김종혁 시의회부의장, 경기도 최계동 혁신산업정책관 축사가 이어졌고, 화합을 통한 희망의 2019년이 되자고 했으며, 이하준 문화원장의 건배사를 통한 덕담이 이어졌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각 기관단체·사회단체장 등을 비롯하여 상생기업 종교류협의회, 지역상공인협의회, 건설기업인협의회 및 건설사 관계자, 여성경제인협회와 업종별협의회 KTEP등 많은 기업인단체와 회원들이 참여하여 새해인사를 나누며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하였다.

2018 희망나눔 성금 기탁 1억원 상당 이웃돕기 성금·성품 전달



지난 1월 27일 2018년 희망나눔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2018년 희망나눔 성금은 회원사 및 읍·면·동 상공인협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되었고, 성금 및 성품 9천7백20만원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김포시에 기탁했다.

김남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금을 내주신 회원사들에게 늘 감사하고 고맙다”며 “이러한 마음이 김포상회가 추구하는 상생의 모습이며, 성금과 성품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희망나눔 성금 참여 회원사

삼창기연(주) | (주)상보 | (주)동산 | 대정산업(주) | 경신금속(주) | (주)대한중전기 | (주)드림세프 | (주)송암아이템 | 김포운수(주) | (주)동서 | (주)한덕유리 | (주)크레치코 | (주)동양밴드 | 삼진스틸산업(주) | (주)한웅 | (주)진성테크 | (주)권-아트 | (주)신흥밸브 | (주)대성기계 | 금강기업 | (주)디엔텍 | 성일산업(주) | 세창이피에스(주) | (주)신영 | (주)오성기계엔지니어링 | (주)유창 | (주)케이폴 | (주)코품 | 한국셀마스(주) | 덕성중합건설(주) | 필성건설(주) | 영진ENG건설(주) | (주)새한비엠 | 푸른나래(주) | 세미조경개발(주) | 아이젠건설(주) | 화남식품공업 | 연호금속(주) | (주)바이하츠 | 쌍용전기(주) | 삼정크린마스터(주) | (주)오토코리아 | (주)에이스텍코리아 | 김포시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 고촌상공인협의회 | 양촌상공인협의회 | 대곶상공인협의회 | 통진상공인협의회 | 월곶상공인협의회 | 하성상공인협의회 | 김포융합지회 등



관리부서장 2월 정례회의

관리부서장협의회 2월 정례회의가 2월 19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회원사 관리부서장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포상의 자문위원인 김장한 노무사가 '2019년 달라지는 노무 제도'를 주제로 특강했다. 이어 진행된 2019년 신입 관리부서장협의회 임원진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김남준 회장이 권명오 명예회장, 강인석 회장 등 신입 임원진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관리부서장협의회 이·취임식

김포상공회의소 관리부서장협의회 임원 이취임식 및 송년회가 지난해 12월 22일 레스트호텔에서 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초대 회장 (주)대성씨앤씨 권명오 이사에 이어 (주)오토코리아 강인석 부사장이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강인석 회장은 "네트워크를 통해 각 회사의 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장협의회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군경 위문 방문, 관계자 격려

지난 1월 31일 김남준 회장을 비롯해 상임의원 등과 함께 2019년 군·경 위문을 실시했다. 김포경찰서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육군 제17보병사단 및 해병2사단 등을 방문하여 위문품 및 위문금을 각각 전달했다.



김포대, 청년고용협의회 개최

김포대학교(총장 김재복)가 지난 8일 '청년고용협의회'를 개최했다. 김포대학교 관계자는 "김포지역 청년들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해 김포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건설관련 기업인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29일, 관내 건설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김포시 건설관련 기업인 간담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는 공공부문과 민간개발 사업 등 전반적인 공사참여 현황을 소개하고, 관내 우수 중소기업의 생산자재와 장비, 물품구매 등의 사용실적을 보고했으며 지속적인 관내업체의 참여기회 확대와 홍보지원 마련을 위한 협의로 진행됐다.

한편, 김포시에서는 2020년 입주를 목표로 12개 건설사가 17개의 아파트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날 회의에서 지역생산 자재 사용 증대에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사)김포융합지회 이·취임식

김포융합지회는 지난해 12월 20일 김포컨벤션웨딩홀에서 정하영 시장, 김두관 국회의원, 홍성길 이임회장, 김요섭 취임회장 및 회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주)신명전기 대표이사 홍성길 2대 회장에 이어 (주)디자인파크개발 김요섭 대표이사가 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호남기업인협의회 이·취임식

김포호남기업인협의회는 지난해 12월 4일 아라마리나 컨벤션에서 회원 및 가족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3대 강종섭 이임 회장과 4대 한현만 취임 회장은 회원을 대표해 김포복지재단과 김포시 장학재단에 1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용마로지스 택배서비스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2017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아쏘시오홀딩스 계열사 '용마로지스'가 올해 택배 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택배서비스 제공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택배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업택배에서 용마로지스가 A등급을 받아 서비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해, 택배서비스 제공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택배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특히, 용마로지스는 기업택배군에서 2014년, 2016년, 2017년에 이어 올해도 A등급으로 평가 받으며, 우수한 물류서비스 수준을 인정받았다. 용마로지스 관계자는 "용마로지스는 지난 36년 동안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특화된 물류서비스를 통한 H&B 글로벌 SCM리더'가 되겠다는 용마로지스의 비전 달성을 위해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성플라테크 직원 복지 향상으로 또 한번 주목

“이익 30% 직원 복지 꿈, 더 가까워졌죠”

화장품 용기 분야 '히든 챔피언' 우성플라테크가 뛰어난 사내복지로 또 한번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소재인 '헤비블로우(Heavy Blow)'를 개발해 화장품 용기 시장 변화를 주도한 우성플라테크는 국내 최초로 헤비블로우 성형기술 특허를 획득한 후, 헤비블로우 대량생산 체제에 돌입했다.



ISBM 설비를 들이기 전까지 85억원 수준이던 매출은 지난 2014년 124억원으로 급상승했고 지난해에는 2배 이상 늘어난 270억원으로 꺾중 뛰었다.

허 대표는 “회사 철학인 ‘이익의 30%는 직원 복지를 위해 쓰자’를 실천한 결과 젊은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이직률도 낮출 수 있었다”면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누리플랜

‘2030년 매출 · 시총 1兆’ 비전 선포

“매출 1조원이 될 때까지 뛰겠다” 다짐

도시경관 전문기업 누리플랜(회장 이상우)이 창사 25주년을 맞아 지난 7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2030 FLY UP 1! 1!’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다. 비전의 핵심은 2030년까지 매출액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 기업 가치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것.



이상우 누리플랜 회장은 비전선포식에서 “시장은 예측이 힘들만큼 빨리 변하고, 기술도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며 “경관조명 · 시설분야 외에도 미세먼지 · 백연 제거장치, 도로용 안개제거장치, 지향성 스피커와 같은 신기술 투자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동양벤드

창립 20주년 맞아 제2의 도약 준비

“임직원 행복, 제1의 가치로 실천하겠다”

산업용 관이음쇠 전문생산업체인 (주)동양벤드(회장 홍성돈)가 10월 28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김포시에서 출발한 동양벤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기술력 향상과 신제품 개발에 노력.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와 세계시장 수출기업으로 성장했다. 동양벤드의 용접식 관이음쇠는 가스배



관을 비롯해 석유화학, 해양플랜트, 조선, 원자력, 화력플랜트, 담수플랜트, 하수종말 및 해수시설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무용접식 관이음쇠(커플링)는 건축, 소방, 급수배관에 적합한 이음쇠로 공기단축과 진공과 소음차단, 내진에 강한 장점을 갖춘 고장력 커플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홍성돈 회장은 “지난 20년간 동고동락해온 회사 가족들과 저희 제품을 믿고 사용해 준 많은 협력업체와 고객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우수한 제품 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 신속한 납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자금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1. 지원개요

- 융자총액 : 400억원(분기별 접수)
- 융자금액 : 업체당 3억원 이내(융자기간 1~3년 업체별 선택)
- 대출금리 : 기업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상이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2.0% 이자차액 보전 (*추가(0.5%)지원 : 김포시중소기업대상, 여성·장애인기업, 본사 관내이전 기업, 고용중대기업(전년동일분기 대비 10%이상 고용중대기업))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3. 대출은행 관내 6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관외 1개 은행 : 한국씨티은행 일산 중앙지점

4. 구비서류 신청서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

5. 문 의 처 김포시 기업지원과(☎980-2283),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980-0541)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자금력이 부족한 김포시 관내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1. 지원개요

- 융자총액 : 40억원(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금액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1~4년 만기 및 분할상환)
- 대출금리 : 기업별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상이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2.0% 이자차액 보전 (*추가(0.5%)지원 : 김포시중소기업대상, 여성·장애인기업, 본사 관내이전 기업, 고용중대기업(전년동일분기 대비 10%이상 고용중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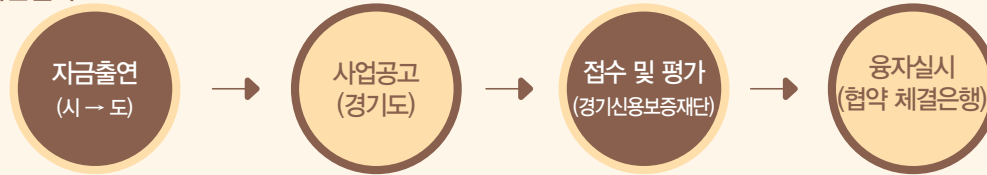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으로 관련 인허가를 필한, 현재 김포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시장이 정한 업종의 사업자

3.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 업체 · 휴 · 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 여신거래가 불가 기업 · 기대출 운전자금 상환일로부터 만 6월 미만의 업체 · 최근 3년 이내 시 운전자금 융자한도액을 초과 지원받은 업체

4. 문 의 처 김포시일자리경제과 031-980-2563,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031-997-1278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 지원절차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3. 대출금리

- 기업이 기금용자와 협조용자를 비교하여 유리한 그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변경은 불가함
- 기금용자금리 : 3.0%(도에서 별도 고지하는 금리 적용)
- 협조용자 금리 : 은행금리-이차보전율(※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별도의 이차보전율 적용)

4. 구비서류 : 신청서 및 평가에 필요한 서류

5. 상담 및 문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서비스 홈페이지 <http://g-money.gg.go.kr>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59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하여 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사업기간 : 2019. 1 ~ 자금 소진 시까지

- 융자금액 : 업체당 5천만원 이내(융자기간 1~4년 만기 및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중소기업특례보증 업체당 2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업체당 2천만원

2. 문 의 처

김포시 기업지원과(중소기업) 031-980-2283, 김포시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 031-980-2563,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031-997-1278

구 분	중소기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경기도 및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결정 업체 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지원을 받기 어려운 업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김포시로 되어있고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는 업력 3개월 이상 자
접 수 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디자인에 반가 놀 하 격 라 에 다



주부들의 욕심을 자극하다! 드림셰프

매일 매일 가족이 소통하는 공간 주방. 주방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곳이다. 그래서인지 사랑을 담아 보글보글 끓일 냄비에 대한 주부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올해로 20년 째 주방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

(주)드림셰프(대표이사 김양영)가 그 곳. 21세기 냄비 디자인과 흐름의 변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드림셰프는 에라코믹에 이어 2016년부터 오슬로라는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주부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고 있다.

주방을 인테리어 하다 '오슬로'

에코라믹 통주물냄비에는 20년동안 냄비와 프라이팬을 만든 드림셰프의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있다. 무거운 철 대신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등 무게는 줄이고, 실용성은 높은 최고의 제품이다. 여기에 내추럴 스톤코팅이라는 최신 코팅공법으로 가마솥 밥맛을 재현해 냈다. “원료 선정부터 제품 개발과 생산, 포장까지 국내에서 직접 꼼꼼히 감독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김양영 대표의 설명이다.

게다가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주방 어디에 놓아도 좋은 인테리어 소품처럼 느껴진다. 또한 모든 주부들이 선호하는 인덕션 & 하이브리드 겸용으로 빠른 열전도율을 자랑한다. 게다가 누구나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가벼운 소재, 물방울이 도르르 굴러내리듯 편리한 설거지는 주방 일을 덜어주는 핫 아이템임을 증명한단다.

홈쇼핑 매출 1천억, 가성비 최고 '드림세프'

드림세프는 1999년부터 20년동안 냄비와 프라이팬을 생산하고 있는 주방용품 전문업체다.

2005년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방송을 시작으로 인연을 맺었다. 그 후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2015년 현대홈쇼핑 상반기 통주물 냄비 판매 부문 1위를 기록하며 TV 홈쇼핑 판매액 750억을 돌파했다. 매 방송마다 3,000세트 이상을 꾸준히 판매하는 베스트 셀러 브랜드, 주방 홈쇼핑의 핫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2018년에는 에코라믹과 신개념 주방냄비세트 에코라믹을 합쳐 홈쇼핑 매출 1천억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베트남 공장, 국내를 넘어 세계로

기술력과 디자인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독일, 미국, 이탈리아, 호주, 대만 등 21개국에 제품을 수출 하고 있는 드림세프는 2019년부터 베트남 공장을 본격 가동한다. 이미 국내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1차 오더를 확보해 놓은 상태로 현장부터 무역영어, 경영 등을 차근차근 배워온 아들 김 00씨가 현지 법인장을 맡아 드림세프의 세계화에 도전한다. 김양영 대표는 “어느새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영불안 요소들을 안고 있다.”며 “베트남 공장을 통해 일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을 꿈꾸며

드림세프 20년, 그 역사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발주처의 부도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는 어려움도 겪었고, 사람 문제로 가족들이 밤을 새우며 일을 한 날들이 허다했다. 그래서 김양영 사장과 전혜선 부사장 부부가 가장 중시 생각하는 비전은 ‘동반성장’이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못 살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이 함께하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소통이 시작되죠.”라는 김양영 대표. 그는 ‘이웃과 함께’라는 신념으로 해마다 초록우산, 김포 복지재단 등에 적지 않은 금액을 기탁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에코라믹과 오슬로는 드림세프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준 혜택이다. 그래서 에코라믹, 오슬로와 함께하는 주방은 행복하다.

(주)드림세프

본사_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절골로 98번지 TEL. 031-989-9432

유통사업본부_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46 이엔시드림타워 708호 TEL. 02-2628-5010

소비자센터_ 080-989-9434

▲ 김양영 대표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함께





60년 외길, 저탄소 녹색성장선도기업

‘전동기 & 기어드’ 대표 브랜드 (주)신명전기

“50년을 살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지천명, 知天命), 60년을 살면 귀가 순해져서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이순, 耳順)고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제법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신명전기가 한 길을 걸어온 것 같아 뿌듯합니다.” (주)신명전기 홍성길 대표이사의 짧지만 굵은 회사 소개다.

1958년 설립한 신명전기가 어느새 환갑을 맞았다. 요즘 100세 시대라지만 5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 시대 기업 환경이다. 특히 (주)신명전기는 결눈질 없이 오직 전동기(산업용 w모터)로만 60년 외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전동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4년 KS 인증, 81년 UL 승인 받은 기술력

1958년 설립된 신명전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1974년 KS 인증 획득, 1981년 UL 승인, 1995년 유럽 TUV, CE 인증 등 국제인증 획득 등 국제표준화에 전념했다. 그 결과 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기모터와 감속기 전문기업으로 국내외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키워드가 되면서 모터 회전자축에 기어를 부착해 기존 모터보다 회전 토크를 크게 강화한 ‘고효율 기어드(Geared) 모터와 단상유도 전동기, 사상 유동전동기 등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제49회 무역의 날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수출 500만불탑 수상에 이어 2013년 수출 1,000만불탑 수상이라는 경이적인 영업실적을 날기도 했다.

무한경쟁의 시대, 품질만이 정답이다

오랜 기간 기술축적에 노력했던 신명전기는 정확한 성능예측을 위한 설계기술과 탁월한 제조기술을 개발해 고효율 ·

고성능의 프리미엄급 유도전동기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 어느 기업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낮은 가격을 무기로 물량공세를 펼치는 중국기업들의 도전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특히 수출주도형 업체는 하청구조여서 가격이든 기술이든 밀리면 끝장나는 판이었기 때문이다. 홍성길 대표는 “기술은 다 인정하면서도 거래처가 하나 둘씩 중국회사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렇다가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오직 품질’ 만이 50년의 역사를 지키고 미래를 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영업에 더욱 정진했던 것이 적중했다”고 회상한다. 이렇게 위기를 넘긴 신명전기는 오히려 중국에 8천여 평의 생산시설을 짓고, 거기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로 들여와 조립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홍 대표는 “기술개발과 R&D 등 핵심역량은 국내에 기반을 두고, 생산라인은 중국에 두어 기술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제효과를 낳게 됐다”고 평가한다.

오독이처럼 일어나는 사람들 ‘신명전기’

1958년 설립해 대기업과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기술력을 축적했던 신명전기. 그러나 15년 전 신명전기는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다. 당시 파산결정을 받으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신명전기는 직원들이 60%의 지분을 확보, 사원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리를 잡을 무렵인 2016년 화마가 또 한번 신명전기를 덮쳤다. 당시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면서 4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조립 및 유통 중단으로 발생은 영업손실은 추산이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홍성길 대표와 직원들은 또 한번 놀라운 기적을 일구며 2년 만인 2018년말 2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며 다시금 자리잡게 됐다. 홍성길 대표는 “1985년 입사해 젊음을 바친 회사”라며 “이제 100년을 내다보는 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 한다. 기어, 모터의 고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개척을 위해 각종 R&D사업은 물론 혁신컨설팅 사업에 직접 참여해 기업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는 홍성길 대표.

“내가 먼저 우리 제품을 아끼고 애용할 때 일류가 될 수 있다”며 직원과 협력과 상생을 강조하는 홍성길 대표는 각 나라에 신명전기 대리점을 개설하는 것이 목표다.

(주)신명전기

본사·공장_ 경기 김포시 양촌읍 삼도로 44 (학운리 1813-1) Tel 031-988-4102 Fax 031-988-4101

서울사무소_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5-3 STX W-Tower 912호 Tel 02-6927-9696 Fax 02-6124-4124





보이지 않는 공포 ‘미세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공장에서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태울 때나 자동차의 배출 가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 10 μ m 이하인 미세 먼지, 지름이 2.5 μ m 이하인 초미세 먼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황산염, 질산염 등이 주를 이루며 검댕(연소 시 연기와 함께 발생하는 가루), 탄소류 및 기타 광물들로 구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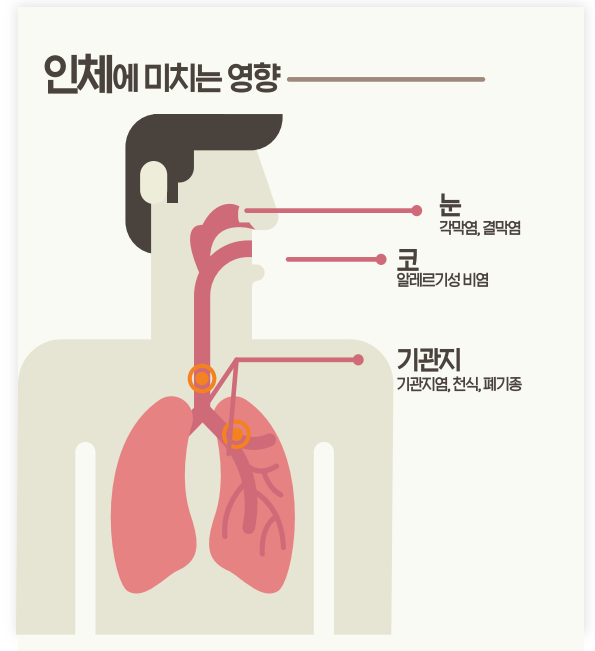
작은 입자의 미세 먼지는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 속으로 스며들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여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 유아, 임산부나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자들은 미세 먼지로 인한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관지에 미세 먼지가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세 먼지는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기능을 떨어뜨리고 천식 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심한 경우에는 천식 발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자는 미세 먼지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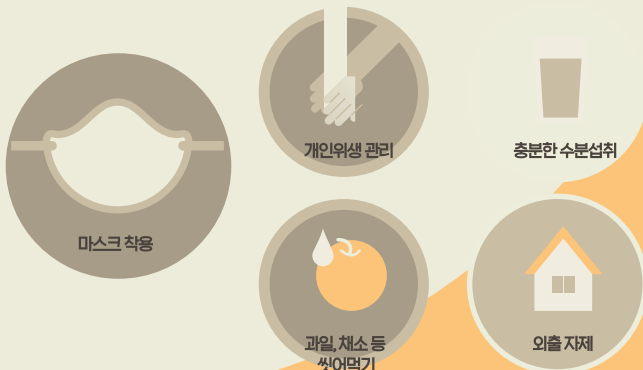
미세 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환자가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 인 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에는 치료 약물(속효성 기관지 확장제)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천식 환자는 유치원이나 학교 보건실에 증상 완화제를 구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성 호흡기 질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착용 후 호흡 곤란 두통 등 불편감이 느껴지면 바로 벗어야 합니다. 대기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닫아 외부의 미세 먼지 유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음식물 조리 시에도 미세 먼지 농도가 상승하므로 특히 음식물을 굽거나 튀긴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미세 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6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미세 먼지에 노출된 후 호흡 곤란, 가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호흡기 질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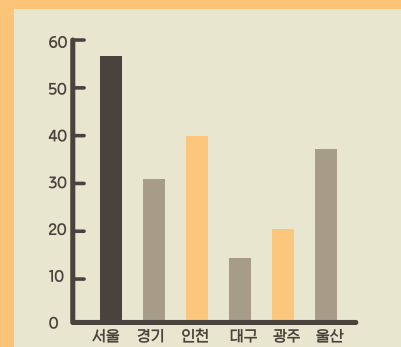


노진규 과장(김포우리병원 호흡기내과)

● 미세먼지 예방수칙



● 지역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들어보셨나요?

국외전출세(Exit Tax)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Exit Tax’로 알려져 있는 국외전출세는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변경해 원래 거주지의 소득에 대해 탈루한 후 다시 거주지를 변경하는 등의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it Tax’는 이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권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2016년 말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으로 소득세법에 국외전출세를 신설했으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시행되므로 국외 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외전출세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과세대상을 국내 주식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국외 자산 등으로 확대 할 가능성도 있다.

납세의무자

국내법인의 대주주(상장 비상장을 불문)가 출국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의 기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서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 · 시가총액이 소득세법상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국외전출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대주주’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말하며 특히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지분율 4%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부분의 비상장법인 주주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계산

출국일을 양도일로 보고 계산하는 ‘간주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이 된다.

* 간주 양도차익은 출국일 현재의 보유 주식 등의 시가에서 보유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출국일 현재의 보유 주식 등의 시가는 국외전출자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 등의 거래가액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 주식은 출국일 이전 1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출국일 전 · 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가산세

간주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공제(연간 2,500,000원)를 차감하여 세율 20%,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총 22%가 과세되는데 2019년부터는 미신고시 주식의 액면가액에 2%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세액의 신고 및 납부절차

국외전출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정 요건을 갖춘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납세편의 제도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간주양도차익보다 실제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에 적용하는 절차로서 조정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거주지 이전 후의 국가에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실현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국외출국세에서 공제해 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상기의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제도와 함께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간주양도 국내주식 등을 양도하지 않고 국내에 재입국시 환급 및 납부유예를 취소하는 제도도 있다.

☞ 상기 제도는 미국의 경우 1966년 대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 등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소득세법 제118조의 9 내지 제118조의 18에서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고 2019년에는 미신고시 가산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시행 초기로서 개정사항이 빈번하므로 대상자는 관련법령을 살펴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영식 세무사(김포시청 앞 유림회관 ☎031-996-0303)

루이 14세와 이순신의 목소리

지난해 초 구글은 프랑스의 한 라디오 행사에서 루이 14세의 음성을 구현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뮬레이션한 것이지만 구글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루이 14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최근 구글은 바이오헬스에 핵심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투자예산의 절반을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자회사 칼리코는 인간의 수명을 500세까지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분야를 진료와 치료로 나눠 진료에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으로 세계의료시장을 평정하겠다는 전략이다. IBM 왓슨 등 여타 세계적 혁신기업들도 의료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엉뚱하게도 우주관광사업을 하고 있다. 20년 전부터 블루오리진이라는 우주비행회사를 만들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우주산업에서 자국 내 경쟁구도가 생긴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 모든 나라가 재정으로 꾸려나가고 있지만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구글, 블루오리진 등 5개 회사가 경쟁하고 있다.

200년 전 산업혁명 이래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다. 인간의 죽음과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것이다. 하나는 마이크로의 세계로, 또 하나는 매크로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양쪽 모두 신의 영역으로 다가가는 노력이다.

혁신의 가장 큰 원동력은 경쟁이다. 우주의 신비와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이라는 거대 경쟁에서 모두 미국이 앞서고 있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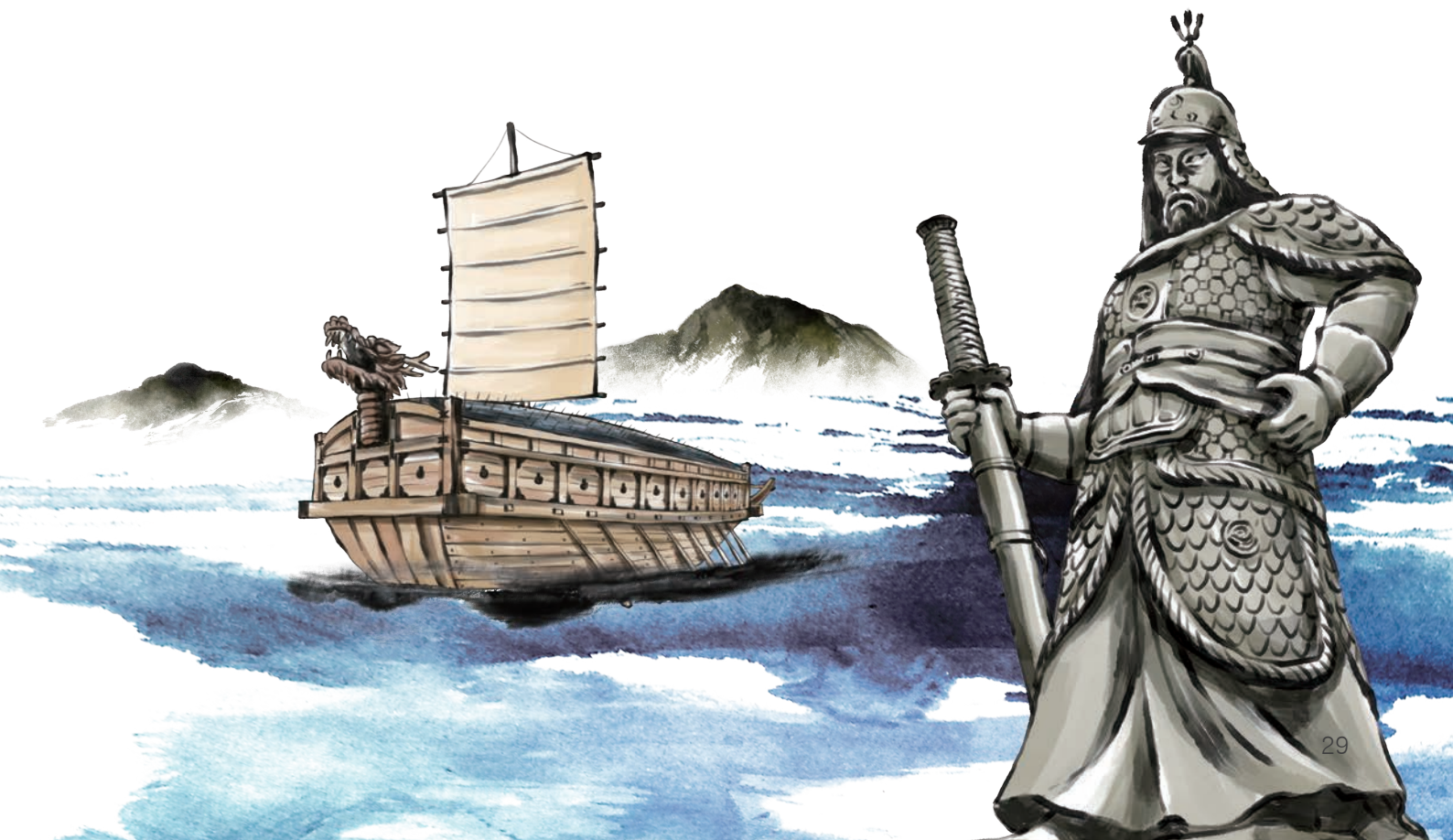
정치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일지 모르나 경제는 현재와 미래의 대화다. 경쟁의 주체는 기업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인이다. 미래첨단 분야에서 경쟁이 일어나도록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기업인들의 원초적인 욕망이 창업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실리콘밸리가 정글이라면 한국은 동물원이라는 비유가 있다. 규제가 없는 정글 속에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다. 철저한 약육강식이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규제라는 울타리에 갇혀 사육되고 있다. 좁은 울타리 안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가 없다. 그저 주어진 먹잇감만 맛볼 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기업들을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키워야 한다. AI의 밥이라는 빅데이터 공유를 위해 소위 개망신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개정하고 원격의료·공유경제 등 기득권의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구글·IBM 등 정글 속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강자로 글로벌 시장을 재편해나가고 있다.

미래산업을 위한 전장에서의 선봉장은 기업인이며 경쟁만큼 뛰어난 정책은 없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울타리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도 이순신 장군의 목소리를 한 번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울경제신문, 2월 14일자 발췌)





신규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업종
히즈메디병원	유현수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681	1588-0223	종합병원(종합검진, 지역·직장건강검진 외)
JDX	김영숙	김포대로 1472	031-997-5071	JDX 골프웨어
(주)나우	원종철	대곶북로305번길 118-54(대곶)	031-983-8506	금속창호, 알미늄루버
예원금속	마명철	황금로324번길 38(양촌)	031-986-6058	화장품용기
호텔 마리나베이서울	장관우	아라욱로270번길 74(고촌)	02-6095-5252	호텔
(주)비월드	최유창	양촌읍 김포대로1750번길	031-982-6413	방음벽공사, 헨스공사
C.I 테크	김진양	학익동로 87-22 (대곶)	031-997-0715	알루미늄판재 절단기
케이알승강기(주)	오경탁	대곶남로401번길 117-57(대곶)	031-988-5133	승객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승강기
DH테크	문재홍	황금3로7번길 9 0(양촌)	032-566-7285	용접기
(주)조조인터네셔널	조한형	유현삭시로247번길 18-39(양촌)	031-998-5474	인쇄
본도시락	한수진	초당로16번길 130-7(장기동)	031-997-4282	도시락
(주)티피지	김성철	대곶면 대곶북로 315	031-981-0056	햇팩, 방습제
(주)대원에프에스	서태길	포내로 13-39 (월곶면)	031-985-2359	육식수건장, 거울, 하부장
진원산업(주)	정진원	고양로 17(월곶면)	031-989-9234	비닐포장지
가자연세병원	전병호	돌문로 43(사우동)	031-998-8009	병원
동일에프앤티(주)	서현재	수남로21번길 37 (대곶면)	031-984-1321	국산차, 다류
(주)오케이비전	김숙희	승가로 83(풍무동)	070-4006-1493	콘택트렌즈
(주)삼우	홍승영	구래로42번길 123-30(양촌읍)	031-984-4072	텀블러, 보틀, 밀폐용기/금형
(주)태원정밀	유태규	초원로 32(대곶면)	031-987-3931	레이저 임가공
경원산업(주)	실경찬	울생중앙로 165(대곶)	031-987-5611	볼트
진성ENC	이병찬	용강로103번길 123-17(월곶면)		건설 개발
동우엠테크노	이정필	황금로 117, 테크노존 209호(양촌)	031-981-3448	일회용주사기 제조
(주)신영그라텍	최호운	하성면 동마동로43번길 30	031-981-9111	식품포장지
진주유통	김창욱	양곡1로 77(양촌읍)	070-4225-3349	빵, 음료
화신종합상사	황재진	중봉1로 59(북변동)	070-4064-8839	건축자재
양촌리민물장어	이문희	김포대로1759번길 134-47(양촌)	031-996-5033	음식점
(주)로드이엔지	민 준	대곶북로 356-53(통진읍)	031-985-9105	철판 가공(절단, 절곡)
(주)선우시스	박기영 박명신	대곶북로305번길 42-30 (대곶면)	031-984-2349	AL 창호, 산업기계등
아그니코리아(주)	김성수	학운산단1로 6(양촌읍)	031-996-5547	방화재
통진천막공사	박민수	율마로 339-32, 상가4호5호(통진읍)	031-996-8016	천막, 파이프, 판넬 시공제작
김포캠핑파크(주)	박민우	용강로 325(월곶)	031-981-2535	캠핑장 위탁관리
현우에프앤씨(주)	조경진	봉화로 48(사우동)	02-471-3500	토목/건축자재외
(주)솔라썬에너지	강상원	아라욱로58번길 89, 4층(고촌읍)	031-982-8888	전기공사
신우산업(주)	변중서	대곶면 율마로194번길 124	031-996-8693	토목건축산업용 접착제
(주)베네거	우명주	봉수대로 1704 (양촌읍) 동신상가 202호	031-8032-7989	가구 하드웨어, 환기캡
SCT산기(주)	선종국	하성로570번길 129-32(하성)	031-984-5442	집진기
디엠로직스	김기만	북변1로16번길 34, 106동804호(북변동)	010-4782-2013	무역대행
연세유병원	유태원	김포한강4로 531 제이스프라자8층(구래동)	010-2960-0820	병원
세븐아울렛	김희관	김포대로 1473 김포패션아울렛내 스타스포츠	02-989-5042	의류 판매
(주)김포엔젤돌봄기관	이경희	북변중로65번길 4-8(북변동)	031-996-1007	돌봄기관, 요양원
(주)알이씨	조병수	사우중로74번길 29, 602-1호	031-983-9972	내화캐스타블
편한특송	종미숙	군하로 172, 2층101호(월곶면)	010-2764-6559	화물차 운송, 주선
(주)명신스틸	허수행	율마로 153(대곶면)	031-986-2580	철강 제조, 유통
(주)창경씨엠씨	이보근	통진읍 월하로479번길 35	031-984-5571	알루미늄 창호
(주)성도기계	노인현	황금로128번길 56(양촌읍)	032-565-9111	호이스트, 크레인
(주)락텍	이재성	황금로258번길 35(양촌읍)	032-677-2511	착암기
(주)우리이엔씨	최 훈	사우중로 19, 301호(사우동)	031-996-0860	측량, 지하시설물 조사 외
성광금속	임경석	하성면 전류리 316-3	031-997-9844	기타비철금속주조, 주물
원호개발(주)	강원택	운양로65번길 47 (운양동)	031-984-6860	철물공사, 창고공사
(주)거승산업	이상준	율마로138번길 45(대곶)	031-981-7330	웨지핀, 플랫타이
베토(주)	송희식	울생중앙로 153 (대곶면)	032-568-7870	자동차부품
보스톤플란트치과의원	정재원	김포한강1로 250, 골든타임701호(운양동)	031-983-2883	치과
(주)서현엘리베이터	이구이	학익동로34번길 129, 1층(대곶면)	031-981-0936	엘리베이터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업종
성원엠케이홀딩스(주)	차광수	아라욱로152번길 210-22(고촌읍)	02-3665-8873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임대 개발업
(주)은성도로	민경근	북변중로 136(북변동)	031-985-7704	도로(페인트)
(주)신성에이치앤에프	박병구	황금로128번길 21(양촌읍)	031-988-5892	마루바닥재, 가구손잡이 및 철물
서문티브(주)	이동건	대곶서로 1-34(대곶면)	031-689-5585	마루바닥재, 열처리목재
(유)한국타임즈항공	김주열	천호로 210(대곶면)	031-999-2000	항공기 취급/정비/임대
(주)성지화학	문사업	절골로 91-34(통진읍)	031-998-7491	플라스틱
(주)리스크포레이션	이정두	대곶면 대곶서로249번길 72	02-2643-4515	필터하우징, 필터/압력용기 제작
김포디지털랜드	임재학	율마로384번길 89(통진읍)	031-988-9100	복합기, 사무기기 판매 임대
솔트바이오(주)	김미경	금파로 171-37(사우동)	02-2282-0107	가공 천일염
건영산업	최명식	대곶남로 632-30(양촌읍)	031-997-8977	플라스틱 식품용기
김고푸른참치	김유진	돌문로62번길 13,1층(사우동)	031-997-2008	일식음식점
국가유공자상이군경 자활사업장(주)	박창식	대곶면 송마로 129-28	031-981-9600	폐식용유(동물성, 식물성)
가을(김포쇼핑아울렛)	김권진	양촌읍 양곡3로 184	031-996-4546	유통, 판매
디자인실	조규준	양촌읍 황금로 117, 테크노존937호	031-998-8358	홈페이지 제작
현대자동차친김포대리점	정태화	양도로19번길 17(봉무동)	031-985-3000	자동차 판매
(주)유림개발	김태현	봉화로51번길 72(사우동)	031-997-9247	토공사, 골재생산및제조
더페이스샵 네이처컬렉션	이연수	김포한강4로 118, 상가동1층106호(장기동)	070-8875-5210	화장품 판매
(주)대맥건설	현종식	감정로35	031-981-2712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초록유통(주)	이태희	감암로 97(걸포동)	031-903-9464	종합 식자재
(주)진수바이오텍	김영숙	금포로 117-20, 나동118호(걸포동)	031-997-4058	건강식품
(주)삼송퍼니처	김후만	하성면 원통로51번길 24-1	031-988-4517	부엌가구
(주)판금인	김남영	대곶면 대곶북로403번길 51		
현대종합건재안전	서원호	양촌읍 김포한강4로 279-72	031-997-8125	건축자재
그린종합물류	김상균	대곶면 대곶남로 427	1588-2573	화물운송
세무회계 공감	권혁은	김포한강9로76번길 47,402호	031-982-3133	세무사
(주)원진티앤씨	최원상	양촌읍 유현삭시로 114	031-985-8144	타이어 판매
(주)씨엔에프텍	노재명	삼도공단로 32(양촌읍)	031-981-2100	자동차어시스템
(주)동인기연	정인수	통진읍 대곶북로 370-26	031-999-9030	배낭류
(주)인디인력개발	김태호(팀장)	양촌 양곡3로1번길 109-11, 1층(청목빌딩)	031-981-6812	인력공급
(주)선우랜드	고창일	대곶 율마로 107-13	031-986-8790	가정용품
(주)대양피앤티	정영일	하성 애기봉로774번길 39-17	031-987-8509	분체도로
(주)대건케미칼	김화익	월곶 대곶로484번길 43-20	031-981-6151	산업용 PVC 관, 봉
유영필세무회계사무소	유영필	장기 김포한강4로 113,804호(신한프라자)	031-986-2986	세무회계, 세무조정, 결산 등
(주)우리은행 김포지점	박래운	사우중로 48 (드림월드프라자)1층	031-982-7685	금융
강동그린텍	양진흠	양촌 구래로 130, 가동	031-989-3993	배관자재 및 건축자재
김포다하누촌(주)	곽정미	월곶면 군하로 261 (2층)	031-984-1137	육류(축산물, 농산물), 한식점
세화정밀	김준기	양촌 황금3로8번길 67	031-982-2866	수전금구, 가스부품, 에어컨부품 등
(주)펜타스타	신완수	장기 태장로795번길 111	031-982-5555	건설, 분양시행, 숙박업
(주)이지엠	유계순	양촌 양곡4로 145	031-992-2000	석면비산안정화제, 콘크리트강도증강제
HSC엔지니어링	윤 섭	대곶 대곶북로 387-10	031-981-7361	금형제품 및 정밀부품 개발, MCT/CNC 복합자동선반, 정밀부품 제조
에이엘에스	송영식	양촌 황금로257번길 14	031-982-5307	플라스틱 생활용품 (돼지저금통, 물병, 컵, 핫팩, 쿨팩)
뉴센에너지(주)	조종수	고촌읍 아라욱로 20, 302호	031-982-3345	전문건설하도급,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전기공사
(주)서강	신진선	통진읍 김포대로2385번길 67-137	031-987-3356	물탱크 부자재, 물탱크 시공
디이시스(주)	최정란	대곶면 삭시갈마로 160	031-987-8771	디지털 전력보호 계전기, 통신장비, 변류기 제조
김포금쌀탁주영농조합	최춘기	하성면 하성로 622	031-983-8118	막걸리
(주)공정	박장우	고촌읍 김포대로 340 ,703호	031-981-5191	미끄럼방지 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어린이 탄성포장
제일자동차정비(주)	김진만	양촌읍 양곡4로 117	031-989-0013	자동차정비
(주)삼웅레이저	조상원	대곶면 대곶북로 79	031-989-8234	철판 가공 및 제작
(주)모엔인터내셔널	박덕현	대곶면 율생중앙로 206번길 76	02-867-4999	주방용품(프라이팬, 냄비)
(주)일주	이형주	하성면 월하로 574	031-987-8502	부엌가구, 불박이장, 진열장
디지카고(주)	안정민	고촌읍 아라욱로58번길 186, 2층	02-6925-5785	수출입 물류 서비스, 위험화물 운송



SUNJIN-ENT Co.,Ltd.

선진이엔티주식회사 T.031-982-560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향동로 20 나동 2F

www.sunjinent.com



최소비용! 움직이는 광고매체! 선진그룹 버스광고를 소개합니다.

외부 광고의 특징

● 움직이는 광고효과

고정광고와는 달리 일정한 버스노선 구간을 반복 운행함으로써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집중 노출됩니다

● 광고비용 대비 높은 접촉률 효과

버스 승객은 물론 보행자 및 택시, 자가용 등 교통수단 이용자 모두에게 동시에 노출되어 광고 접촉률이 높습니다

● 최적의 가시거리 효과

광고물은 실사인쇄로 제작되므로 도로의 인도면과 차도면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형버스

차도면 370x100cm
인도면 270x50cm
사랑면 80x80cm



중형버스

차도면 280x100cm

인도면 250x50cm

소형버스

차도면 270x70cm

인도면 230x50cm



내부 광고의 특징

버스는 직장인의 출퇴근시, 학생의 등하교시 및 기타 탑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써 승객의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광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 내부 파노라마 광고

버스 내부창문의 좌·우측 상단에 광고내용을 파노라마 형태로 버스 운행노선도와 함께 제작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승객이 승차하는 동안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중앙문 광고

하차문과 근접하여 광고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형 100x58cm



일반 61x51cm



선진이엔티(주) 버스광고 노선

■ 버스 운행노선은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 역	노 선	버스회사	운 행 지 역
서울/인천 (2층버스)	3000A	강화운수	강화터미널-김포대학교입구-사우동-개화역-염창역-합정역-신촌역
	1004	김포운수	완정사거리-봉무지구-고촌-송정역-흥대역-신촌역-광화문
	G6000	김포운수	고창마을KCC-수정마을-풍경마을-합정역-흥대입구역-서강대
서울/김포 (2층버스)	6427	김포운수	북합환승센터-뉴고려병원-고속터미널-논현역-강남역
	8600	김포운수	한가람, 우미린-김포고-여의도환승센터-마포역-광화문
	8601A	김포운수	대포리-수정마을-당산역-여의도환승센터-서울시청
서울/인천	M6405	인강여객	송도국제도시-선바위역-서초역-강남역-양재역
	M6724	청룡교통	연세대학교캠퍼스-동춘역-강서세무서-합정역-신촌역-서울역
	60	김포운수	검단단봉초교-김포시청-송정역-당산역-영등포(신세계)
서울/인천	66	신동아	검단산입단지-검암역입구-계산동-김포공항-송정역
	88	강화운수	강화터미널-김포대학-사우동-고촌-송정역-당산역-영등포역
	1002	김포운수	완정사거리-봉무지구-송정역-여의도-마포역-공덕역-광화문
서울/인천	1004	김포운수	완정사거리-봉무지구-고촌-합정역-흥대역-신촌역-광화문
	1300	천지교통	송도역-연수동-남동구청-부천시청-흥익대-신촌-서울역
	1301	천지교통	인천대-송도국제도시-논현지구-부천시청-신촌-서울역
서울/인천	1302	천지교통	연세대학교캠퍼스-논현, 서창지구-부천시청-신촌-서울역
	2500	천지교통	계산삼거리-작전역-문래역-영등포역-여의도환승센터-공덕역
	3000	강화운수	강화터미널-김포대학-사우동-개화역-염창역-합정역-신촌역
서울/김포	9100	인강여객	(구)터미널-선바위-인천시청-선바위역-강남역-양재역
	9200	인강여객	송도원지-인하대학교-선바위역-강남역-양재역
	9201	인강여객	선호A-연수구청-통막역-선바위역-강남역-양재역
서울/인천	G6000	김포운수	고창마을KCC-수정마을-풍경마을-합정역-흥대입구역-서강대
	G6001	김포운수	고창마을KCC-수정마을-천원마을-모담마을-당산역-여의도환승센터
	M6117	김포운수	북합환승센터-뉴고려병원-합정역-흥대입구-서울역
서울/김포	M6427	김포운수	북합환승센터-뉴고려병원-고속터미널-논현역-강남역
	2	강화운수	하성-누산리-전원, 수정마을-김포고-개화역-김포공항-송정역
	60-3	김포운수	대명동-김포고-고촌-송정역-강서구청사거리-당산역
서울/인천	388	강화운수	운양동-김포고-고촌-송정역-신월동-개봉역-시흥대로-석수역
	8600	김포운수	한가람, 우미린-김포고-여의도환승센터-마포역-광화문
	8601	김포운수	대포리-수정마을-당산역-여의도환승센터-서울시청
서울/인천	72-3	선진시내	포천시종합복지관-포천시청-의정부역-도봉산역-방학사거리
	3100	선진시내	대진대-의정부-신사역-논현역-강남역-양재역
	3200	선진시내	대진대-의정부-상계동-중랑교-청량리-경동시장
서울/인천	3500	선진시내	차의과학대-의정부-노원-어린이대공원-건대입구역
	3600	선진시내	의정부-수락산역-태릉입구역-강남역-논현역
	9008	김포운수	한가람, 우미린-김포고-고촌-송정역-신월동-개봉역-시흥대로-석수역
부천/김포	따복1	김포운수	학운공단-이천-검단-온누리병원-홍릉리-한전입-김포고
	따복3	강화운수	월곡면사무소-양곡주공A-장기교-전원마을-봉선마을-김포보건소
	따복4	김포운수	대포리차고지-이천-학운4단지-양촌산단-삼거리수퍼-학운2단지
김포	따복7	강화운수	귀천리차고지-하성사거리-누산리-풍경마을-결도동-김포우리병원
	33	선진시내	내촌-고정촌-고민동-가산-송우리-성모병원-터미널-의정부역
	138-5,7	선진시내	도평리-경북대-송우리-의정부면치현정-의정부역
의정부/인천	66	선진시내	의정부북역-가산삼거리-미곡처리장-송우리-청소년회관
	66-1	선진시내	일동중, 고등학교-화현리-명덕리-지현리-신북면-포천시청
	38-7	연천교통	전곡터미널-은대리-고포리-오봉산-고문리보건진료소-고문리
연천	39-2	연천교통	고대산입구-대광리역-연천구청-소요산역-동두천터미널
	39-8	연천교통	전곡터미널-연천군청-연천역-동막골-범회교삼거리-내산리

* 광고물의 규격은 차량종류 및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진이엔티(주)는 서울, 일산, 인천, 김포, 강화, 의정부, 포천, 연천지역을 운행하는 선진그룹(www.sunjingroup.com) 버스의 외부·내부 광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움직이는 광고매체로서, 비용 대비 효과가 월등하여 오래전부터 각광받고 있습니다.